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6 주차 (롬 14:15~14:23)

(2016년 5월 6일 - 2018년 5월 12일)

(제5권 36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5 월 6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4:15~18)

- ¹⁵ εἰ γὰρ διὰ βρῶμα ὁ ἀδελφός σου λυπεῖται, (만약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가 근심하고 있다면)
οὐκέτι κατὰ ἀγάπην περιπατεῖς·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따라 걷고 있지 않다)
μὴ τῷ βρώματί σου ἐκείνον ἀπόλλυε ὑπὲρ οὗ Χριστὸς ἀπέθανεν.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그들을 당신들의 식물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
- ¹⁶ μὴ βλασφημεῖσθω οὖν ὑμῶν τὸ ἀγαθόν. (당신들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 ¹⁷ οὐ γὰρ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βρῶσις καὶ πόσις·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다)
ἀλλὰ δικαιοσύνη καὶ εἰρήνη καὶ χαρὰ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 ¹⁸ ὁ γὰρ ἐν τούτῳ δουλεύων τῷ Χριστῷ εὐάρεστος τῷ θεῷ·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고)
καὶ δόκιμος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평생을 죄에 매여 살던 성도를 해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로마서를 통해 그 죄의 배후가 율법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완전히 폐하여진 것인가? 율법은 인간들에게 무익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율법은 여전히 선한 기능을 하고 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인간들은 여전히 율법 또는 양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에서 율법은 지금도 선하게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죄를 발견한 죄인들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느냐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다. 그들에겐 율법이 곧 삶이니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다. 마치 한국인들이 명절을 지키고 유교적 전통에 따른 예의범절을 지키며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각 공동체는 그들 나름의 미풍양속이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1500 여 년을 살아왔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심 가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율법은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율법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그들의 전통적 생활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전통은 여전히 율법이었다. 율법주의라기 보다는 율법이 생활 양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들은 여전히 음식을 가려먹는 것이 훨씬 편했고 늘 하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다. 그들이 명절로 여기는 축제일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삶을 유대주의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 않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삶의 양식을 의와 거룩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했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비록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명령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 할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린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기 훨씬 전에 이미 할례를 명하셨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창세기 17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할례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표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토록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에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일축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 자체로 100% 완벽한 것이며 거기에 인간들이 무엇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했다 (롬 2:28-29 참조).

할례의 문제는 초대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가장 첨예한 갈등 이슈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각기 다른 전통과 풍습에서 기인한 문제가 그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방인 성도들은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 점에서 할례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치더라도 여전히 전통과 풍습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방인들이 할례의 표식을 가진다는 말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고 유대인들에게 이는 곧 그들이 지키는 식습관, 절기, 인식일 등을 함께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장벽 외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많았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기존의 관습을 고집하며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비난했다. 특히 음식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성도들이 수시로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은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였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때마다 음식 문제로 자주 다툼이 일어났다. 이방인 성도 집에 초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차려진 음식이 율법에 규정된 음식이 아닐 경우 손도 대지 않았다.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유난스럽게 보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음으로 비춰졌다. 물론 유대인들 눈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 없는 자로 여겨졌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판했으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리 만무였다.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사랑은 각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주의자라고 싸잡아 비판했는데 그들 역시도 그런 유대인의 삶을 용납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율법주의가 아니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잘 이해하고 용납해 주나요?

선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5~18)

- ¹⁵ εἰ γὰρ διὰ βρῶμα ὁ ἀδελφός σου λυπεῖται, (만약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가 근심하고 있다면)
οὐκέτι κατὰ ἀγάπην περιπατεῖς·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따라 걷고 있지 않다)
μὴ τῷ βρώματί σου ἐκείνον ἀπόλλυε ὑπὲρ οὗ Χριστὸς ἀπέθανεν.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그들을 당신들의 식물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
- ¹⁶ μὴ βλασφημεῖσθω οὖν ὑμῶν τὸ ἀγαθόν. (당신들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 ¹⁷ οὐ γὰρ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βρῶσις καὶ πόσις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다)
ἀλλὰ δικαιοσύνη καὶ εἰρήνη καὶ χαρὰ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 ¹⁸ ὁ γὰρ ἐν τούτῳ δουλεύων τῷ Χριστῷ εὐάρεστος τῷ θεῷ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고)
καὶ δόκιμος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얼마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찾아와 얼음이 녹아내리고 평화가 찾아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호했다. 두 정상의 회담을 환호하기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노동신문도 여러 지면에 걸쳐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기 바빴다. 우리 나라 언론은 이런 북한 언론의 이례적인 보도 태도에 매우 놀라워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연일 뉴스거리를 낳았다. 그 중에 도이체벨레라는 한 독일 언론이 색다른 시각으로 쓴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 소개된 기사의 일부다.

도이체벨레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져 온 같은 종류의 음식을 즐긴다”며 입시를 앞둔 학생이 행운을 바라며 떡을 찾는 문화 등을 예로 들었다. 설날, 추석, 대보름 등 한민족 모두 중시하는 여러 명절도 소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문화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남한은 ‘동양의 할리우드’라고 불린다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문화를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히트 차트를 살펴 보라”며 외부로 알려진 최신 문화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벨레는 “북한 정부는 스키니진이나 미니스커트까지 엄격하게 금지한다”며 “결혼할 때도 남한은 신부의 화려한 드레스에 큰 돈을 들이지만 북한 주민은 소박하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7일자에서 인용).

도이체벨레가 언급한 내용에 음식과 명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명절을 즐긴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설날, 추석, 대보름 등의 의미, 그것을 즐기는 풍습은 대동소이하다. 오랜 전통을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은 아무리 공산 독재라 할지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음식 문화는 수백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음식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식은 한 민족의 전통이자 그 민족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다. 음식은 그 자체로 인간의 몸이 되고 생명이 된다. 유대인들도 그랬다. 그들이 가진 율법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명시돼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대로 정결한 것만 먹고 살아왔다. 그들에게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었고 당연히 입에도 대지 않았다. 대신 양고기는 즐겨 먹었다. 그리고 그런 음식들은 유대인들의 고유한 체질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풍습 이상이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결한 음식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도 전통에 따라 정결한 의식을 거쳐 만들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식사 예절도 따라야 했다.

상상하건대 아마도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이방인들은 불편하고 속상할 때가 많았을 것이다. 애써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양고기를 준비했는데 조리 과정을 믿지 못해 손도 대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겠지만 말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선언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의 습관이자 문화로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엄격하게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거리낌없이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 않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율법주의로 폄하하는 이방인들의 편협한 태도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습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폄하했다. 바울은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아무 음식이나 먹음으로써 자신의 믿음 있음을 뽐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롬 14:15).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집으로 초대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껏 차려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거부하는 음식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선뜻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주저주저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을 때 당연히 속이 상했을 것이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초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매한가지였을 것이다. 물론 이방인들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는지 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선뜻 먹을 수 없었다. 음식 문제는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본능적인 것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매우 난감했다. 먹을 수도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바울은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랑은 추상 명사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또는 사랑이 많다는 말을 입에 올릴 때면 그 사랑은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화된 어떤 행동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사랑은 제 3 자가 되어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쉽지 않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 서서 죄인이 되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타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다. 상대방이 꺼려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yes)가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상대방에게 폐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하나님 나라는 타인의 삶에 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5~18)

- ¹⁵ εἰ γὰρ διὰ βρῶμα ὁ ἀδελφός σου λυπεῖται, (만약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가 근심하고 있다면)
οὐκέτι κατὰ ἀγάπην περιπατεῖς·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따라 걷고 있지 않다)
μὴ τῷ βρώματί σου ἐκείνον ἀπόλλωε ὑπὲρ οὗ Χριστὸς ἀπέθανεν.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그들을 당신들의 식물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
- ¹⁶ μὴ βλασφημεῖσθω οὖν ὑμῶν τὸ ἀγαθόν. (당신들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 ¹⁷ οὐ γὰρ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βρῶσις καὶ πόσις·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다)
ἀλλὰ δικαιοσύνη καὶ εἰρήνη καὶ χαρὰ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 ¹⁸ ὁ γὰρ ἐν τούτῳ δουλεύων τῷ Χριστῷ εὐάρεστος τῷ θεῷ·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고)
καὶ δόκιμος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카르스텐 플레밍 한센은 죽음을 앞둔 75 세의 덴마크 남성이다. 대동맥 파열과 뇌출혈로 오르후스 대학 병원에 입원한 그는 수술을 거부했다. 수술을 받는 일이 자신에게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자 했다. 영국 ‘메트로’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카르스텐이 자신의 담당 간호사인 리케 크비스트에게 부탁한 소원은 ‘와인’과 ‘담배’였다고 한다. 오르후스 대학 병원은 건물 전체에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 병원 관계자들은 정책보다 카르스텐의 마지막 소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략)... 병원 관계자들은 카르스텐을 발코니로 옮겨준 후, 그가 석양을 바라보며 화이트 와인과 몇 대의 담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에 대해 카르스텐의 딸은 “아버지에게 병원은 최고의 배려를 해주었어요. 마지막 담배를 피우게 해준 건 아버지의 인생 전체에서 정말 많은 걸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평소 집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곤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으로 담배를 원했을 거예요.” 마지막 소원을 이룬 카르스텐은 지난 4 월 7 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허핑톤 포스트 코리아, 2017 년 4 월 12 일자에서 인용).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떨 땐 법과 규정도 뛰어 넘는다. 죽어가는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 준 그 병원은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법이고 엄중한 원칙이다. 누구도 그 원칙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런 곳에서 카르스텐 플레밍 한센은 마지막 소원으로 와인과 담배를 원했다. 병원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원의 규정을 설명해 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다른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원칙이 그러니 미안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책이나 법보다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죽어가는 한 인간을 위해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뜨리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정해 놓은 원칙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백성으로 받아들이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정해놓으신 원칙을 깨고 당사자인 우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는 길을 택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랑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지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와 용서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복음이 주는 은혜의 전부로 착각한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던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랑은 바로 용서와 배려로 나타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사랑이다. 그런 것들이 모여 사랑의 물결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권면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준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서로 서로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뭐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자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추상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려 놓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경험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⁴⁷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¹⁸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롬 14:17-18).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자유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셈이다. 그것 때문에 타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자기 마음도 불편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그분이 우리와 육체로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모습, 용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고 그를 정죄하고 멀리할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이웃이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나요?

화목은 선택이 아니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9~23)

- ¹⁹ Ἄρα οὖν τὰ τῆς εἰρήνης διώκωμεν καὶ τὰ τῆς οἰκοδομῆς τῆς εἰς ἀλλήλους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서로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 ²⁰ μὴ ἕνεκεν βρώματος κατάλυε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지 말라)
πάντα μὲν καθαρὰ, (사실 모든 것들이 정결하다)
ἀλλὰ κακὸν τῷ ἀνθρώπῳ τῷ διὰ προσκόμματος ἐσθίοντι.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그들에게 악한 것이다)
- ²¹ καλὸν τὸ μὴ φαγεῖν κρέα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선하다)
μηδὲ πεινῶν οἶνον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
μηδὲ ἐν ᾧ ὁ ἀδελφός σου προσκόπτει. (당신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 ²² σὺ πίστιν [ἴην] ἔχεις κατὰ σεαυτὸν ἔχε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당신이 스스로 지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다)
μακάριος ὁ μὴ κρίνων ἑαυτὸν ἐν ᾧ δοκιμάζει· (자신이 옳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 ²³ ὁ δὲ διακρινόμενος ἐὰν φάγη κατακέκριται, (민약 의심하고 먹는다면 그는 정죄된 것이다)
ὅτι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πάν δὲ ὁ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ἁμαρτία ἐστίν.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바울은 “우리는 평화와 서로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져야 할까? 성도라면 서로를 향해 정죄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며 사과를 강요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서로 화합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성도간의 화합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²¹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²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²³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²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²⁵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²⁶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1-26).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도간의 화해, 화평의 문제를 율법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며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살인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셨다. 남의 목숨을 강제로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더구나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죄인들은 설 땅이 없다. 특히 유명인들의 일탈은 대중의 표적이 되기 십상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해낼 때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익명의 군중들 속에 섞여 자신을 숨긴 채 그를 향해 치명적인 돌팔매질을 해대기도 한다. 남에게 비난의 돌팔매질을 해대는 사람들은 적

어도 자기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길 뿐 아니라 비록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잘못은 작은 티끌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으로 한 유명한 연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가 재직하던 한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일이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당시 그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의 삶은 하루 아침에 망가졌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일탈을 폭로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마침내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누가 그를 죽였을까? 물론 잘못된 일탈들이 그의 죄의식을 극대화했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의 배후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해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용서 받지 못한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을 살인과 동일한 죄로 보셨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먼저 진정한 사과를 해야지만 피해자가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성경은 가해자의 사과를 전제하지 않는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거룩에 치명상을 입었다. 인간들로 인해 세상에 죄가 생겨난 것이다. 말하자면 아담이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인 셈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은 가해자들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가해자인 인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그들의 반성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성사시키셨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인간들의 회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용서를 깨닫게 되면 그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극히 낮은 수준의 회생일 뿐이다.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곁에 있는 성도와 화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신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면 화목함의 의미,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간에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¹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¹⁹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선포하셨다. 그 화목의 중심에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여 그들과 화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화평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당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권한을 포기하도록 한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9~23)

- ¹⁹ Ἄρα οὖν τὰ τῆς εἰρήνης διώκωμεν καὶ τὰ τῆς οἰκοδομῆς τῆς εἰς ἀλλήλους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서로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 ²⁰ μὴ ἕνεκεν βρώματος κατάλυε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지 말라)
πάντα μὲν καθαρὰ, (사실 모든 것들이 정결하다)
ἀλλὰ κακὸν τῷ ἀνθρώπῳ τῷ διὰ προσκόμματος ἐσθίοντι.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그들에게 악한 것이다)
- ²¹ καλὸν τὸ μὴ φαγεῖν κρέα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선하다)
μηδὲ πειν οἶνον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
μηδὲ ἐν ᾧ ὁ ἀδελφός σου προσκόπτει. (당신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 ²² σὺ πίστιν [ἴ]ην ἔχεις κατὰ σεαυτὸν ἔχε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당신이 스스로 지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다)
μακάριος ὁ μὴ κρίνων ἑαυτὸν ἐν ᾧ δοκιμάζει· (자신이 옳다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 ²³ ὁ δὲ διακρινόμενος ἐὰν φάγη κατακέκριται, (민약 의심하고 먹는다면 그는 정죄된 것이다)
ὅτι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πάν δὲ ὁ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ἁμαρτία ἐστίν.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과 대립하여 원수 관계에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큰 용서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술이나 담배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은 술이나 담배같은 먹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인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타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할 줄 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용서와 사랑이 대체한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타인에 배한 배려심이라고는 눈썹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며 사랑 운운하는 것은 자기당착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먹는 문제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술을 즐겨 마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가정해 보자. 기존의 성도들이 그에게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라고 권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불편해질 분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끊으라는 게 당연한 권면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로 새로 교회에 출석한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 교회에 오기를 꺼려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절대적인 개념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복된 소식이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 어떤 이에게 음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무리 중요한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음식을 가려먹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정결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음식 규례가 생소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들은 먹는 문제에 관한 한 유대인들에 비해 훨씬 자유로웠다. 자유롭다는 말은 허용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말이다. 은혜는 자유에 비례한다.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법이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사문화된 율법에 얽매어 여전히 그것을 지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비판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다.

배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용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 바울은 모든 음식이 다 정결하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삼겹살을 즐겨 먹는 사람이 와인을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율법에서 돼지고기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와인은 적당히 마시는 건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는 모든 음식이 다 가하다. 오직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정결하니 가려 먹지 말고 뭐든 다 먹으라고 강요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점을 배려해 주고 이해해 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바울도 먹는 문제에 관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이 이런 결심을 했노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8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전 8:8-13).

믿음이 약하면 가리는게 많아지는 법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에 더 집착한다. 그래서 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진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약하면 가려 먹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 한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 마련이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맞춰 주라고 권면한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진 권한을 내려 놓는 것에서 시작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음은 타인을 향한 배려로 드러난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9~23)

- ¹⁹ Ἄρα οὖν τὰ τῆς εἰρήνης διώκωμεν καὶ τὰ τῆς οἰκοδομῆς τῆς εἰς ἀλλήλους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서로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 ²⁰ μὴ ἕνεκεν βρώματος κατάλυε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지 말라)
πάντα μὲν καθαρὰ, (사실 모든 것들이 정결하다)
ἀλλὰ κακὸν τῷ ἀνθρώπῳ τῷ διὰ προσκόμματος ἐσθίοντι.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그들에게 악한 것이다)
- ²¹ καλὸν τὸ μὴ φαγεῖν κρέα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선하다)
μηδὲ πειν οἶνον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
μηδὲ ἐν ᾧ ὁ ἀδελφός σου προσκόπτει. (당신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 ²² σὺ πίστιν [ἴην] ἔχεις κατὰ σεαυτὸν ἔχε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당신이 스스로 지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다)
μακάριος ὁ μὴ κρίνων ἑαυτὸν ἐν ᾧ δοκιμάζει· (자신이 옳다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 ²³ ὁ δὲ διακρινόμενος ἐὰν φάγη κατακέκριται, (민약 의심하고 먹는다면 그는 정죄된 것이다)
ὅτι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πάν δὲ ὁ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ἁμαρτία ἐστίν.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다. 아담이 나하스(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 나하스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 나하스가 아담과 하와를 일거에 무너지게 만든 말은 ‘하나님처럼’이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속삭인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말이다. 결국 인간이 저지른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치를 탐한 것이고 그 탐심으로 인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 코스프레가 오늘까지 유전병처럼 이어졌다. 하나님 코스프레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남과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배반한 인간과 관계를 단절했다. 창조주인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믿음이란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해결할 권한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이로써 인간들의 고질적인 유전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처럼’이라는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구원이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며 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악 판단의 주체임을 인정하게 된다.

“당신이 스스로 지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간단 명료하게 믿음을 설명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도 아니고 누가 크고 작은지 비교할 대상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 죄 많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과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있다는 점이다.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음식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바울은 시장에서 산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다. 그들이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말고, 그것으로 서로의 믿음을 비교하거나 또 그것을 잣대 삼아 스스로의 믿음이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먹는 자리에서 시장에서 산 고기에 손도 대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두고 보란 듯이 고기를 먹는 행동은 믿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신앙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는 것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바울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다. 모두가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이지 그것이 인간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믿음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 경우 바울은 누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권면할까?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꺼려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자신들의 자유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²³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²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²⁵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²⁶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²⁷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²⁸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²⁹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³⁰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³¹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23-31).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한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이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잣대로 함부로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아직도 타인의 믿음없음을 비판하고 있다면 그 또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나요?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인간의 소신은 객관적일 수 없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9~23)

- ¹⁹ Ἄρα οὖν τὰ τῆς εἰρήνης διώκωμεν καὶ τὰ τῆς οἰκοδομῆς τῆς εἰς ἀλλήλους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서로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 ²⁰ μὴ ἕνεκεν βρώματος κατάλυε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지 말라)
πάντα μὲν καθαρὰ, (사실 모든 것들이 정결하다)
ἀλλὰ κακὸν τῷ ἀνθρώπῳ τῷ διὰ προσκόμματος ἐσθίοντι.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그들에게 악한 것이다)
- ²¹ καλὸν τὸ μὴ φαγεῖν κρέα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선하다)
μηδὲ πεινῶν οἶνον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
μηδὲ ἐν ᾧ ὁ ἀδελφός σου προσκόπτει. (당신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 ²² σὺ πίστιν [ἴ]ης ἔχεις κατὰ σεαυτὸν ἔχει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당신이 스스로 지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다)
μακάριος ὁ μὴ κρίνων ἑαυτὸν ἐν ᾧ δοκιμάζει· (자신이 옳다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 ²³ ὁ δὲ διακρινόμενος ἐὰν φάγη κατακέκριται, (민약 의심하고 먹는다면 그는 정죄된 것이다)
ὅτι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πάν δὲ ὁ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ἁμαρτία ἐστίν.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람이 소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신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는 바 또는 굳게 생각하는 바’다. 사람이 소신이 있다는 말은 어떤 대상, 사건에 대해 자신만의 신념 체계가 있고 그것이 변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해진 상태임을 의미한다. 누구에게나 소신은 있기 마련이고 소신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소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풍습을 따라 살아왔다. 그리고 그들 나름의 음식에 대한 소신이 생겼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동안 이어져 온 자신들의 소신을 고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소신이란 이미 내면화되어 쉽게 바뀌기 어렵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각자의 소신대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재화된 신념이 아무 음식이나 거리낌없이 먹는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들끼리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방인들과 어울릴 때면 어김없이 문제가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라도 하면 그 자체로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졌다.

베드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선포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충격적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 역시 뺏속까지 유대인이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보인 반응은 음식 문제가 유대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다.

⁹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¹⁰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¹¹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¹²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¹³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¹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¹⁵ 또 두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¹⁶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행 10:9-16).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합류시킬 때만 하더라도 율법이나 문화적인 이슈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 베드로의 소신,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소신은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할 정도로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 번이나 듣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처럼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만 있던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이 교회의 원리다. 그런데도 초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는 일종의 율법화가 되어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지 못할 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금한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 문제라 할 수 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그럼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이나?’라며 힐난이 빗발칠 것이다. 게다가 담배는 성경에서 언급조차 한 적이 없는데도 이 또한 술 못지 않게 꺼리는 문제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못 끊고 있는 사람은 이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 중에는 담배를 끊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교회에서 술과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기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되어 버렸다. 한 인간의 신념은 단지 타인의 삶을 제약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신념은 스스로의 영혼을 값어치 먹기도 한다. 인간은 각자 내면에 자리잡은 기준들로 판단을 한다. 어떤 이는 키가 작은 것을 열등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의 키가 크고 작음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단지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할 뿐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비결은 내면에 형성된 신념 체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과 자신의 신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것으로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한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쉽게 상처를 입는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책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낙인 찍은 채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죄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소신있게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당신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믿을만 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소신을 바꾸거나 버릴 수 있나요?